



광주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FTTH 서비스센터' 개통식이 27일 오전 첨단산업단지내 광통신연구센터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FTTH를 이용한 첨단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장성~담양~화순~나주 원형 연결 광주 3순환도로 조기 건설

광주시·전남도, 상생 프로그램 가동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권 주변 외곽순환도로 조기 건설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8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민선 4기 출범 이후 첫 광역행정협의회를 갖고 광주를 중심으로 장성~담양~화순~나주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광주권 주변 외곽순환도로(광주 제3순환도로) 조기 건설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시·도는 이에 앞서 가진 실무협의회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 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 ▲광주권 교통난 완화와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서는 광주권 주변 외곽도로 조기 건설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광주권 주변 외곽순환도로는 양

촌~본량(14.85km·1구간), 본량~북광주(18.15km·2구간), 북광주~대덕(17km·3구간), 대덕~화순(32km·4구간), 화순~양촌(20.40km·5구간)을 잇는 총연장 102.4km, 6차로 도시고속도로이다. 총 사업비는 3조4천702억원 규모이다. 시·도는 현재 공사중인 1·3구간은 2008년까지, 나머지 구간은 늦어도 2015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무안~광주 고속도로 ▲호남 고속도로 ▲88올림픽 고속도로 ▲장성~담양 고속도로 ▲광주~안도 고속도로 등 광주권 주변 고속도로 5개를 연결, 광주를 중심으로 장성·담양·화순·나주 등이 광역도시권으로 묶이면서 새로운 '메트로폴리탄'을 형성하게 된다. /김주정기자 jkpark@kwangju.co.kr



시·도는 이와함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대(大) 수도권'에 대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이병록 광주시 기획관리실장은 "광역행정협의회를 출발점으로 해서 광주와 전남이 본격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가동해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kpark@kwangju.co.kr

'IP-TV 시대' 광주가 연다

(인터넷 쌍방향 텔레비전)

광주 '광가입자망' 1,840세대 시범 실시 FTTH 깔린 6,000세대 확대적용 가능

주부 김현진(29·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씨는 오후 7시만 되면 남부대 원어인 강사에게 영어 수업을 듣는다. 버스를 타고 학원에 갈 필요도 없다. 컴퓨터 앞에서 외국인 강사와 즉석에서 묻고 답하는 '양방향 강의'가 끝난 시각은 밤 9시. 수업이 끝나면 MBC 방송에서 조금 전 끝난 '열아홉 순정'을 다시 돌려본다. 인기 정상의 드라마·영화 등 마음대로 골라 볼 수 있는 영화 등 콘텐츠는 2천700개에 달한다.

김씨는 "드라마를 다시 돌려볼 수 있고, 외국인 강사에게 실시간으로 영어 수업을 받는 게 신기하다"고 말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접했던 '영화 같은 현실'을 자신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김씨는 새로운 디지털 기기만 나오면 써보고 싶어 안달이 나는 '마니아'(mania)가 아니다. 단지 광주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 : 제품이 출시될 때 가장 먼저 구입해 평가를 내린 뒤 주위에 제품의 정보를 알려주는 성향을 가진 소비자군)가 됐다.

27일 광주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개통식을 가진 '광가입자망(FTTH : Fiber To The Home) 서비스센터'는 광주 지역민들에게 FTTH를 이용한 최첨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ETRI 복안이다.

김씨를 비롯, 광주지역 1천840세대가 광주시민이라는 점 때문에 첨단 서비스를 제공받는 '특혜'를 받았고, 6천220가구에는 언제든 이같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가입자 집까지 광섬유가 깔려 있다.

FTTH는 가입자 가정까지 광케이블을 깔아 놓은 것으로, 방송·통신 등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현해주는 광대역 초고속 통신망. 가정 내 정보단말기 및 가전기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 ▲인터넷 접속 ▲HD급 고품질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맞춤형 시간대용 TV ▲주문형 비디오(VOD) ▲양방향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최첨단 응용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들을 통해 일반적 소비자들의 '니즈'(needs·수요)를 짚어내게 되면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컬러 콘텐츠 개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ETRI 복안이다.

특히 FTTH는 최소 100메가(Mbps) 이상의 전송 속도를 보장하고 최대 1기가(Gbps)까지 가능해 디지털 정보와 방송을 TV 수상기로 즐기는 IP-TV 서비스 시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서울 등 수도권 일부로 제한됐던 '와이브로'(wireless broadband internet : 휴대 인터넷)나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 손 안의 TV) 시범 서비스와 달리 IP-TV의 경우 광주에서 시범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광주 광통신연구센터 송호영 팀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지역에 6천세대가 넘는 FTTH를 이용한 초고속 통신망이 구축, 향후 도입되는 IPTV 시범 사업 수행을 위한 최적을 조건을 갖췄다"면서 "또 지역 정보통신업체들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金교육 '이중 논문' 시인

도덕성 논란 확산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27일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동료 교수들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뒤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관련기사 4면>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마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구자가 최종 확인해야 했는데 못한 것은 두말할 것 없는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교육에 관해 생각하고 고민해온 것들은 해볼 수 있도록 기회와 도움을 달라"고 말하며 사퇴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야당은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논문과문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부총리 스스로 고백하고 문제가 있다면 깨끗이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하며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로 있던 1999년 동료교수 2명과 함께 팀을 구성해 '지방정부 경영, 행정 진단 및 평가연구인력 양성'을 주제로 BK21사업에 선정돼 2억70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어 8편의 논문 작성 사실을 교육부에 보고했으나 2001년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의외와 도입상의 기본원칙'(한양대 학술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에 관한 연구'(국민대 학술지)가 같은 논문으로 밝혀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탑 프루트' 포도 담양 고서, 최상품 생산

최고의 쌀 '탑 라이스'가 있다면 최고의 과일 탑 프루트(Top Fruit)가 등장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과일 수입 개방 시대에 대비해 최고 품질의 과일을 추구하는 '탑 프루트' 프로젝트를 추진, 제 1탄으로 '탑 프루트 포도'를 출시했다.

담양군 고서면 동은 2리 포도 시범단지에서 15 농가가 참여해 생산한 탑 프루트 포도는 당도 15 Bx(당도 단위) 이상, 한 송이당 무게 400g 이상이며 전량 국립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생산 인증을 받은 국내 최고급 포도다. /송기봉기자 song@

후원학원 장학 56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sbu.ac.kr
신남대학교
http://www.shinam.ac.kr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物價情報
http://www.kpi.or.kr
대한민국물가정보
TEL.1977-7900 FAX.198773-4802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 내린다

8월1일부터 전국 123개 고속도로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값이 일제히 인하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달 1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을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의 상하 0.3% 범위 내에서 책정

해 판매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고속도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주유소에 따라 2 당 1천496~1천505원으로 올해 유 및 경유 가격을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인 1천537원에서 최대 41원 내린다. /연협뉴스

30대여성 80% 만족률 만족 연구결과 입증
이번만큼은 후회없이 답화이트닝
IOPE